

인터뷰집

직장인에게 알맞은 복장은?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720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없다. 없어도 된다

2
직장

007201

00

목차

0. 여는 글 : 얼굴로 일하는 거 아니잖수? 1

: 11명의 직장여성 인터뷰이 소개

1. 모집·채용공고부터 시작되는 외모조건 9

: 2016년에도 '훈남훈녀', '예쁜'이란 단어로 채용공고를?!

: 용모단정의 '진짜' 의미

: 외모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부적합'판결을 받다

2. 취업준비 과정 17

1) 3*4cm 이력서 증명사진이 증명해주는 것은? 18

: 패션, 강사직종에서 '업계관행'으로 당당히 요구되는 사진, 키, 몸무게

: '서비스직'이라 불리는 곳에서의 외모규정들

2) 취업컨설팅 수업에서의 외모지적 34

3) 면접과정에서 듣게 되는 말들 : "건강은 하나?" 38



3. 외모지적 : 직장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42

직장생활에서 외모관리란 '영혼을 죽이는 행위'이다.

직장생활에서 외모관리란 '무언의 압박'이다.

직장생활에서 외모관리란 '업무 외의 영역에서 부당하게 주어지는 강요'다.

직장생활에서 외모관리란 '통제와 압박'이다.

직장생활에서 외모관리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이다.

직장생활에서 외모관리란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직장생활에서 외모관리란 '간섭할수록 꼴불견'이다

1) 직장인 자기계발서 모니터링 : 당신의 여성성을 알리지 마라? 48

2) 직장 내 복장규정 : “업무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60

3) 외모관리 요구에 끝은 없다 : 언제부터 화장이 ‘예의’였나 66

4) 외모관리는 ‘프로페셔널’의 상징 : “저러니까 일을 못하지” 73

5) 직장에서 꽃이 된다는 것 : “이제야 여직원 있는 느낌이 난다” 76